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3부 · 적극적 표지 4: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감정론』 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네 번째 적극적 표지, 인쇄 382~413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거룩한 감정은 빛 없는 열이 아니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참된 감정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알고 이해한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지식에서 나오지 않은 감정들을 먼저 걸러 냅니다. 갑자기 떠오른 형상, 성경 본문이 떠오른 현상, 기도 중에 말문이 터진 일, 몸이 느끼는 쾌감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식에서 나왔더라도 성령의 일반적 조명이나 사람에게 배운 지식에서 나온 감정도 걸러 냅니다. 이어서 그는 영적 지식이 '신적인 일들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맛보는 마음의 감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감각이 새 세계를 열고, 성령의 참된 인도란 이 '거룩한 미각'으로 분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끝으로 직접 계시와 상상에 기댄 열광주의가 교회 역사에서 사탄이 부흥을 망쳐 온 통로였다고 경고합니다. 다만 강한 감정 때문에 생생한 상상이 뒤따르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붙여 균형을 잡습니다.

🪪 표지 카드

표지 4(적극): 은혜로운 감정은 마음이 밝아져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고 영적으로 깨닫는 데서 생겨난다.

이 표지가 증거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것에는 참으로 감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들 속에 있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맛보아' 압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 영적 지식에서 흘러나왔다면, 그 사람 안에 새

감각이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감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상상이나 떠오른 말, 몸의 느낌에 근거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절별 정리

📜 1. 거룩한 감정은 빛 없는 열이 아니다

에드워즈는 첫머리에서 은혜로운 감정의 원천이 지식이라고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운 감정을 체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의 일들을 전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거나, 이미 알던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감정(affection)'은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끌리거나 거부하는 영혼의 깊은 움직임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앎과 묶고, 지식 없는 열심을 책망합니다.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지식을 굳은 마음을 열고 감정을 풍성하게 하는 '열쇠'라고 부릅니다.

1. 참된 감정 = 새로운 앎에서 나온 열
2. 이미 알던 진리를 새롭게 받는 것도 포함
3. 사랑과 앎은 성경에서 짝을 이룬다
4. 지식 없는 열심은 책망받는다
5. 지식은 마음과 천국 길을 여는 열쇠

> **요한일서 4:7**
>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과 앎을 묶는다
>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 **빌립보서 1:9**
>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기도
>
>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참된 경건이 아님을 보여 준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3:10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시편 43:3~4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예배의 기쁨으로 이끈다

3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4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요한복음 6:45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께 온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가복음 11:52

지식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감정은 빛 없는 열이 아니다."

📜 2. 지식 없이 일어나는 감정들

지성에 빛을 받지 않고도 강하게 일어나는 감정이 많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런 감정은 아무리 고조되어도 영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예는 갑자기 떠오른 아름다운 얼굴이나 반짝이는 빛 같은 '외적 형상'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의 길에 대해 하나도 더 알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이 떠오르는 방식 자체에 감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는 성경을 '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히 “떠오른 본문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알았다”는 확신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개인이 누구인지 이름으로 밝히지 않고, 그런 사람의 열매와 특성을 알려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중에 말문이 터진 것이나, 원인 모를 몸의 쾌감을 곧바로 성령의 임재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감정은 교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지'에서 나옵니다.

1. 형상·빛의 환영은 앎을 더해 주지 않는다
2. 본문이 '떠오른 방식'에 감동하면 헛되다
3. 성경은 사랑받는 개인을 지목하지 않는다
4. 구원의 확신은 열매와 특성으로 확인한다
5. 말문 터짐·몸의 쾌감은 무지가 키운 감정

> **누가복음 24:32**
>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감동은 이해에서 나온다
>
>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절에서 직접 인용된 구절은 이것 하나다.)

📜 3. 빛이 있어도 '영적인 빛'이어야 한다

감정이 어떤 지식에서 나왔더라도, 그 빛이 영적이지 않으면 은혜로운 감정이

성령의 '일반적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 조명이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타고난 이해력을 도와 신앙의 일을 더 잘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일입니다. 이것도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영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만 아는 영적·초자연적 지식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지식과 본질과 종류가 아예 다릅니다.

1. 배워서 얻은 지식도 감동을 줄 수 있다
2. 일반적 조명도 마음을 크게 움직인다
3. 그러나 둘 다 영적 감정은 아니다
4. 성도에게만 있는 영적 지식이 있다
5. 종류가 다른 지식이다, 정도 차가 아니다

> **고린도전서 2:14**
> 자연인에게 영의 일은 어리석게 보인다.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 **요한일서 3:6**
>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
>
>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 **요한삼서 1:11**
>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
>
>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 **요한복음 14:19**
>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요한복음 17:3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마태복음 11:27

아들이 계시해 주는 사람만 아버지를 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3:8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골로새서 1:9

성경은 이 지식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 부른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 4. 영적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거룩함의 아름다움

성도의 지식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것과 종류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거듭날 때 받은 '새 영적 감각'의 지각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 감각'은 하나님의 일을 맛보고 느끼게 하는, 중생 때 주어지는 새로운 마음의 기능입니다. 에드워즈는 앞 장에서 이 감각의 대상이 신적인 일들 자체에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 곧 '도덕적 완전성(거룩함)'의 아름다움임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영적인 빛으로만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 참된 믿음은 신적인 일들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토대가 되는 지식은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마귀도 알 수 있습니다.

1. 영적 지식 = 새 감각으로 지각하는 것
2. 대상은 거룩함(도덕적 완전성)의 아름다움
3. 믿음은 사랑이므로 아름다움을 알아야 한다
4. 다른 속성은 마귀도 안다
5. 모든 신앙 지식이 이 감각에서 흘러나온다

> **고린도후서 4:3~4**
> 이 세상 신이 가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
>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고린도후서 4:6**
> 하나님이 마음에 비추시는 것은 그리스도 얼굴의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다
>
>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 **고린도후서 3:18**
>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그 형상으로 변화된다
>
>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말미암음이니라

📜 5. 마음의 감각: 머리로 아는 것과 맛보아 아는 것

에드워즈는 '마음의 감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적 지식은 사변만이 아니고, 지성과 의지를 칼같이 나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지식을 구분합니다. 하나는 사물을 바라보기만 하는 '개념적(사변적) 지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을 즐기고 느끼는 '마음의 지식'입니다. 삼각형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무엇이 달콤하고 역겨운지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도 마음의 지식에도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꿀을 맛본 사람은 보고 만져만 본 사람보다 꿀을 더 많이 압니다. 성경도 앞의 지식을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 부르고, 뒤의 지식은 맛봄과 냄새로 묘사합니다. 영적 지식은 일차로 이 '미각'에 있고, 이차로 이 미각에 기대어 나오는 모든 앎을 포함합니다.

1. 개념적 지식: 바라보기만 함
2. 마음의 지식: 맛보고 즐기며 앎
3. 지성과 의지가 함께 움직인다
4. 꿀을 맛본 사람이 꿀을 더 잘 안다
5. 미각이 없는 지식은 영적 지식이 아니다

로마서 2:20

사변적 지식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 부른다(번역본에는 2:19로 표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고린도후서 2:14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냄새(향기)'로 묘사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음'.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맛들이지' 못함

>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전서 2:2~3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말씀을 사모한다

>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가 1:3

향기로운 이름이 사랑을 낳는다

>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요한일서 2:20

거룩한 분에게 받은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안다. 아가 1:3과 짝을 이룬다

>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 6.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여는 새 세계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맛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모든 것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이 있으면 다음이 차례로 보입니다. 창조와 섭리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스도 인격의 탁월함이 보이고,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로 충분하시며 그 보혈이 귀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구원의 길이 지혜롭고 합당하다는 것도 보입니다. 말씀이 살아 있게 되고, 의무가 사랑스러워지며, 죄가 역겹게 느껴지고, 천국의 참 영광이 보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일로 그립니다. 그 변화는 날 때부터 맹인이던 사람이 대낮에 갑자기 눈을 뜨는 것보다 더 큽니다.

1.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비춘다
2. 그리스도의 인격 → 중보의 충분성
3. 성경에서 아름다움을 빼면 죽은 문자다
4. 거룩함이 아름다우면 죄는 역겹다
5. 중생 = 맹인이 눈뜨는 것보다 큰 변화

> **고린도후서 5:16~17**
>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다
>
>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디모데후서 3:5**
> '모양'만 있는 경건. 에드워즈의 '지식의 모양'이라는 표현이 이 구절을 되울린다(재료에 장절 표기는 없음)
>
>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 **고린도전서 2:14**
>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3절과 연결)
>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것도 모른다.”

📜 7. 일반 조명과 구원하는 지식의 차이

여기서 핵심 구분이 나옵니다. 구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일들 안에 있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고, 타락한 영혼은 이것에 본래 눈멀어 있습니다. 일반 조명은 타고난 감각으로도 조금은 아는 '본성적인 것'을 더 많이 알게 해 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성령께서는 죄책과 형벌의 관계, 하나님의 두렵고 위대한 '본성적 완전성'(능력·위엄)을 더 분명히 보여 주십니다. 최후 심판 때 악인들의 양심이 깨어나는 것도 이런 앎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천국의 화려함과 안락함과 높은 지위 같은 '본성적 선'에 끌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자기 사랑과 맞아떨어지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싫어하는 것은 호랑이나 독사를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미덕을 좋아하는 것은 상인이 금을, 농부가 기름진 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1. 구원하는 지식: 거룩한 아름다움을 봄
2. 일반 조명: 본성적인 것을 더 알게 됨
3. 양심의 각성은 두려움을 알게 할 뿐이다
4. 천국의 '좋은 것'만 좋아할 수도 있다
5. 자기 사랑으로 복음을 반길 수 있다

> **요한계시록 1:7**
> “모든 눈이 그를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심판 날 악인의 각성을 묘사한 표현이 되울리는 구절(재료에 장절 표기는 없음)
>
>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 **마태복음 13:20**
>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돌밭.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기쁨을 묘사한 표현이 되울리는 구절(재료에 장절 표기는 없음)
>
>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 8. 새 명제, 신비한 해석, 떠오른 '할 일'은 영적 지식이 아니다

위의 정의에서 몇 가지 결론이 따라 나옵니다. 영적 지식은 읽거나 듣지 못한 새 명제가 떠오르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교리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명제를 아는 지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나 예표를 풀어내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 비유, 야곱의 사다리, 여호수아의 요단 도하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 설명하면서도 영적인 빛은 한 줄기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신비한 뜻을 성령이 직접 알려 주셨다”며 감정이 고조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또 “이 일을 하라”는 생각이 직접 떠오르는 것도 영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명제도 결국 교리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발람에게 갈 길과 할 말을 직접 생각나게 하셨지만, 발람에게는 영적인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1. 새 명제가 떠오름 ≠ 영적 지식
2. 예표·비유 해석 능력 ≠ 영적 지식
3. 모든 비밀을 알아도 사랑 없으면 무익하다
4. 직접 떠오른 '할 일'도 교리적 지식일 뿐
5. 발람: 지시는 받았으나 빛은 없었다

> **고린도전서 13:2**
> 모든 비밀과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
>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 **로마서 8:14**
> 성령의 거룩한 인도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의 표지다. 발람식 지시와 구별된다
>
>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 **갈라디아서 5:18**
>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참된 인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 9. 떠오른 구절로 길을 정하는 일과 '영적으로 성경을 이해함'

에드워즈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뉴잉글랜드의 한 사람이 위험한 로마교 지역이나 이교 지역으로 가야 할지 기도합니다. 그때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에게 하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가 특이하게 떠오릅니다. 그는 애굽을 자기가 가려는 나라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를 뉴잉글랜드로 돌아올 약속으로 읽습니다. 에드워즈는 여기에 영적 인도의 본질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새로운 뜻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때부터 거기 있던 본래 뜻을, 눈이 열려 비로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 이유가 영적으로 눈멀었기 때문이라면, 그 뜻은 이미 성경 안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성경에 새 의미를 더하는 것은 새 성경을 만드는 일이고, 두려운 저주로 금지된 일입니다.

1. 야곱의 말씀을 내 진로로 읽는 오류
2. 영적 이해 = 본래 뜻을 보는 것
3. 조명은 눈을 여는 것이지 뜻을 더하는 게 아님
4. 새 의미를 더하면 새 성경을 만드는 셈
5. 보는 대상: 하나님·그리스도·구원의 영광

> **창세기 46:3~4**
>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자기 진로 지시로 오용하는 예
>
>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 **시편 119:18**

>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22:18

말씀에 더하는 것을 저주로 금하는 근거(에드워즈는 '두려운 저주'라고만 말함)

>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것은 성경 본문에 담겨 있는 본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 10. 성령의 참된 인도: 말씀 아래 길러진 거룩한 미각

성령의 은혜로운 인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가르침을 따르도록 힘 있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심은 '거룩한 미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술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얼굴을 보자마자 아름다운지 압니다. 음악가는 계산하지 않고도 화음을 알고, 미식가는 맛보자마자 좋은 음식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영혼은 거룩한 행동에는 끌리고 거룩하지 않은 행동에는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에드워즈는 한 철학자의 '미각' 설명을 길게 인용합니다. 미각은 추론의 절차 없이 순간적으로, 이성보다 더 확고하게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비유도 듭니다. 마음씨 좋은 평범한 사람이 냉정한 실력자보다 친절한 행동을 더 잘 찾습니다. 떨어지는 돌은 수학자보다 지구 중심으로 가는 길을 더 정확히 압니다. 반대로 악인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은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각은 말씀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미각 자체가 말씀의 법 아래 있고 말씀으로 연단됩니다. 구강이 건강한지는 다른 기준으로 따져야 하듯이, 미각이 바른지도 말씀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각은 정욕에서 오는 편견을 걷어 내어 말씀의 참뜻을 더 잘 깨닫게 돕습니다.

3. 성령이 강하게 내주할수록 더 정확하다
4. 악인에게 거룩한 행실은 안 맞는 옷이다
5. 미각은 말씀에 종속되고 말씀으로 연단된다

욥기 12:11

입이 맛을 가리듯 귀가 말을 가린다. 미각 비유의 성경적 근거

>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2:57

표적 없이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신다

>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12:2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한다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도서 10:2~3

우매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없다. 원리가 없으면 행실이 어긋난다

> 2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3 우매한
>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 말하느니라

잠언 10:32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잠언 16:23

지혜로운 마음이 입을 슬기롭게 한다. 마음의 성향이 행동을 이끈다

>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 11. 잘못된 인도관, 열광주의의 역사, 사탄이 쓰는 통로인 상상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오해합니다. 성경에 이미 주신 율례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직접 '새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단이나 지혜는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참된 인도는 참된 지혜와 거룩한 분별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별이 개똥벌레보다 높은 만큼 더 고귀합니다. 직통 계시, 미래에 대한 계시, 가상의 '성령의 증거', 떠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모두 머릿속 상상에 찍힌 인상일 뿐입니다. 에드워즈는 이런 체험이 역사 속 거짓 종교들의 토대였다고 말합니다. 피타고라스학파, 에세네파, 영지주의자, 몬타누스주의자, 중세 수도사들, 재침례파와 도덕률폐기론자 같은 종교개혁 이후의 열광주의 분파들, 크롬웰 시대 영국의 열광주의자들, 뉴잉글랜드의 허친슨 추종자들, 최근의 프랑스 예언자들이 그 예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부흥을 시작하실 때마다 이런 가짜를 섞어 넣었습니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 가운데 하나만 남기고 다 죽였듯이 부흥을 황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각성의 시기에 특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드워즈는 마귀가 영혼의 생각을 직접 보거나 바꿀 수 없고, 몸과 상상을 통해서만 접근한다고 추론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무서운 문장 같은 사탄의 생각에 잘 시달리는 것도, 상상이 자리한 뇌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1. 판단·지혜 없는 '직접 지시' 신앙은 오해
2. 참된 인도는 지혜와 분별로 이끈다
3. 직통 계시 체험은 거짓 종교의 오랜 토대
4. 사탄은 부흥 때 가짜를 섞는다
5. 마귀의 통로는 상상(몸)이다

> **고린도후서 11:14**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사기 9:5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였다. 거짓 신앙이 부흥을 황폐하게 하는 그림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열왕기상 8:39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에드워즈는 '성경 여러 곳'이라고만 말하므로 대표 구절의 예로 든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 12. 단서: 상상이 뒤따르는 감정이 다 가짜는 아니다

에드워즈는 오해를 막으려고 마지막 단서를 붙입니다. 상상적인 관념이 함께 일어나는 감정이 모두 영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집중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생각이 강렬해지면 그 그림도 더 생생해집니다. 그러나 둘은 크게 다릅니다. 하나는 강한 감정 때문에 생생한 상상이 생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생생한 상상 때문에 강한 감정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는 참된 은혜로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상상은 인간 본성이 약해서 감정 뒤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뒤의 경우, 곧 감정이 영적 깨달음이 아니라 상상 위에 세워졌다면 아무리 고조되어도 헛됩니다.

1. 생각하면 그림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럽다
2. 감정 → 상상: 참된 감정일 수 있다
3. 상상 → 감정: 헛된 감정

(이 절에서 에드워즈는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앞의 논증을 정리해 오해를 막는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지성(understanding)
무언가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영혼의 기능.

영적 지식
하나님의 일들 속에 있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맛보아 아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지식.

개념적(사변적) 지식
대상을 바라보며 정보로만 아는 '머리의 앎'.

마음의 감각
대상이 달콤한지 역겨운지 느끼며 아는 앎. 지성과 의지가 함께 움직인다.

거룩한 미각
따져 보지 않아도 거룩한 것에 끌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꺼리게 하는, 성령이 주시고 말씀이 길러 주는 영적 감각.

일반 조명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타고난 이해력을 도와 신앙의 일을 더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일. 구원하는 빛은 아니다.

본성적 완전성 / 도덕적 완전성
하나님의 능력·위엄 같은 속성(마귀도 안다)과, 거룩함·의·선하심 같은 속성(성도만 그 아름다움을 맛본다).

열광주의
말씀 밖의 직접 계시나 내적 음성을 성령의 인도로 믿고 따르는 신앙 태도.

상상·환영(phantasy)
형상, 소리, 글자 같은 외적 관념을 떠올리는 마음의 힘. 에드워즈는 이것이 사탄이 접근하는 통로라고 본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참된 신앙감정은 빛 없는 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데서 나옵니다.
- 그 앎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들 속에 있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마음의 감각입니다.
- 떠오른 본문, 직통 계시, 신비적 해석, 몸의 느낌은 그 자체로 영적 지식이 아니고,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 성령의 인도는 말씀에 새 뜻을 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아래 길러진 거룩한 미각과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 강한 감정에 상상이 뒤따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상상 위에 감정을 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15편 · 마음이 열려 본다 · 표지 4 영적 이해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